|  |  |
| --- | --- |
| **오시아 연방 Osean Fedaration** | |
| **비행, 노트북, 깃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
| 수도 | 바나 시티 🡪 오레드(Oured) |
| 정치 체제 | 민주 공화제, 연방제, 대통령제 |
| 국가원수 | 빈센트 할링 대통령(President Vincent Harling) |
| 위치 | 북아메리카, 미국 근처 어딘가에 있음, 판도는 알아서 짤 것 |

오시아 연방(Osean Fedaration)은 ‘철통같은 믿음으로’ Mod의 북아메리카 어딘가에 있는 국가이다.

**오시아 연방의 역사**

오시아 연방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미국의 인근 국가이고, 언어나 정치 체제 등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캐나다 등이 북아메리카 연방 합중국에 가맹할 때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오시아 연방은 1차 세계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은 채 중립을 지킬 정도로 ‘우리 나라나 신경쓰겠음’이라는 고립주의를 유지하였지만, 미쳤다고 할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폭력과 전쟁의 참화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자기네 나라를 신경쓰며 살 만큼 목가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에서의 2차 대전은 미친 듯이 발전하고 가속된 기술력으로 인해, 훨씬 더 잔혹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병기들이 사용되었고, 그만큼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시아 연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3제국의 총통 ‘아돌라인 히틀러’는 ‘위대한 아리아인, 대독일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려는 목적만으로 오시아 연방의 구 수도 바나 시티에 전략핵무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쥐고있는, 테이블, 일몰, 케이크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대독일국 크릭스마리네 소속, 만재 배수량 81만톤에 달하는 ‘비스마르크급 잠수항공순양함’이, 사거리 3000km의 레일건 주포를 사용하여 오시아 연방에 핵공격을 가하는 모습, 대독일국 선전 영상물에서 발췌함>

하루아침에 수도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오시아는 이제 반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핵공격으로 인해 행정부마저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 빈센트 할링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그는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독일과 추축국에 선전포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면, 비행, 실외, 항공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오시아 국방 공군 소속 ADF-11F ‘레이븐’ 전투기, 나치 독일군과의 전투 중>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져, 오시아라는 나라가 강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빈센트 할링 정부의 전시체제 하에서 오시아군은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했고, 특히 오시아 국방 공군이 전설적인 위업을 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죄수들로 구성된 형벌부대 ‘오시아 국방 공군 제 444비행전대 스페어 비행대’가, 나치 독일의 엘리트 편대들을 불귀의 객으로 만들고, 독일의 공군원수였던 헤르만 괴링을 거의 죽일 뻔한 에피소드는 지금도 오시아 국방공군의 홍보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배, 비행, 공기, 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오시아 국방공군이 나치 독일의 궤도방공 레이저포 ‘헤르만 괴링 광선포요새’를 습격하는 모습,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아돌라인 히틀러가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도망갔을 때, 오시아 연방은 명실상부한 승전국이자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자, 사람, 넥타이, 착용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950년, 오시아 연방 궤도엘리베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빈센트 할링 대통령>

실외, 일몰, 태양, 옅은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2차 대전 전후, 오시아는 전쟁의 대가로서 구 나치 독일의 우주 프로젝트에 가담하던 많은 과학자들을 포섭하여 ‘그륀더 인더스트리(Gründer Industries)‘라는 기업(사실상 오시아의 우주개발기구)를 설립하고, 궤도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우주개척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아는 궤도 엘리베이터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여 누구나 우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북미 합중국의 시간여행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오시아 연방의 궤도 엘리베이터 정책이 '우리의 이익을 위대하게 하지 못한다‘며 노발대발했고, 그 전까지 친밀한 우방은 아니었어도 나쁜 사이도 아니었던 북미 합중국과 오시아 연방의 사이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시아 연방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첫 번째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코 앞의 가까운 국가인 북미 합중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무력 도발 운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우주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구 나치 출신인 ‚그륀더 인더스트리즈‘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센트 할링이 지금의 오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오시아는 어떻게 될까요?